

RESEARCH ARTICLE

Controversy and Interpretation of Quotes from the Bhagavad Gita Surrounding the Movie Oppenheimer

Kim, Chinyoung*

Research Professor, Soganag University Richard Schaeffler Institute

영화 오펜하이머를 둘러싼 『바가바드 기타』 인용구 논쟁과 해석

김진영*

서강대학교 리하르트세플러연구소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purohita@naver.co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Hindu scripture *Bhagavad Gita* during the Trinity nuclear test by Oppenheimer, the main character of the movie *Oppenheimer*, released in 2023. The phrase he quotes is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The phrase from *Gita* quoted by Oppenheimer in the film, along with the image of the provocative flash of a nuclear bomb and a mushroom cloud, contribute greatly to the visualization of the apocalypse of the end of the world. Quotes from *Gita* that we encountered through Oppenheimer's documentaries, interviews, and autobiography are reproduced through movies, and children are learning these sentences at school. This article analyzes the phrases in Oppenheimer's *Gita* and the possibility of mistranslation, and interprets various criticisms from mythologists, religious scholars, and philosophers surrounding the quote from various angles. This study analyzes cultural debates about symbolic and suggestive Hindu short verses and present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true meaning and issues in religious philosophy. Through Oppenheimer's film, the *Gita* has once again become a symbolic scripture representing Hinduism, and the passages he said are being reproduced as quotations representing the *Gita*. At this point, we discussed the issues of debate and criticism by modern scholars surrounding the passages.

Keywords : Oppenheimer, Christopher Nolan, Bhagavad-Gita, Hinduism, Death.



OPEN ACCESS

Citation : Kim, Chinyoung. Controversy and Interpretation of Quotes from the Bhagavad Gita Surrounding the Movie Oppenheimer.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1, 51-59.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40005>

Received: June 8, 2024

Revised: June 19, 2024

Accepted: June 19, 2024

Copyright: © 2024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2023년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Oppenheimer)』가 개봉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J. 로버트 오펜하이머(J. Robert Oppenheimer)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놀란 특유의 탄탄한 시나리오와 연출력으로 각종 시상식에 휩쓸었으며, 2024년 아카데미상 작품상, 남우주연상, 감독상 등 총 8개 부분을 시상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경전 『바가바드 기타(Bhagavad-gītā, 이하 『기타』)』의 문구가 영화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여론은 뜨거워지고 이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2차대전의 종전을 장식한 원자폭탄의 개발과 핵폭발의 버섯구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미국 뉴멕시코에서 시행된 트리니티(Trinity) 실험에서 핵무기가 터졌을 때, 오펜하이머가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라고 말하는 장면을 영화를 통해 경험하게 된다. 제로포인트에서 핵이 폭발하면서 퍼지는 자극적인 섬광과 함께 오펜하이머의 얼굴 정면이 클로즈업되면서 의미심장하게 대사가 깔린다. 힌두교의 바이블로 불리는 『기타』의 이 문구(11:32)는 오펜하이머의 핵폭탄이 가져올 전 세계 멸망의 암시에 꼭 들어맞는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도 유명하다.

원자폭탄 실험, 하늘에 거대한 오렌지색 버섯구름이 솟아오르는 광경, 그리고 『기타』는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를 형상화하는 시대적 이미지가 되었다. 영화에서 폭탄의 버섯구름 위에 오펜하이머가 읊조린 『기타』의 한 구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면을 압축해서 인용된다.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이 처음 터진 1945년 7월 트리니티 실험 중에 그 말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한 지 20년 후 1965년 NBC 뉴스 다큐멘터리 “The Decision to Drop the Bomb”에 출연하여 그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우리는 세상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웃었고 몇몇 사람들은 울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했다. 나는 힌두교 경전인 『기타』의 한 구절을 기억했다. 비슈누(Vishnu)는 아르주나(Arjuna)왕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취하면서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다.

천재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는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 인도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Sanskrit)를 빨리 습득했고 『기타』를 비롯한 힌두교 경전들을 원어로 읽었다고 알려져 있다. 영화에서도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책장에서 『기타』의 원전을 발견한 연인에게 그 글자가 산스크리트어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베드신에서 트리니티 실험에서 되뇌이던 문구를 읽어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실제로 『기타』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정은 이 문헌과 관련된 대표적인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형에게 『기타』는 ‘매우 쉽고 아주 경이로웠다’고 편지를 썼다. 이는 『기타』가 오펜하이머에게 남긴 인상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 증거이자 지속적인 인상이다. 나중에 그는 『기타』를 “모든 알려진 언어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철학적 노래”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책장 가까이에 낡은 책 한 권을 보관해 두었고 종종 그 번역본을 친구들에게 선물했다. 그는 핵폭탄연구소를 지휘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기타』를 읽었다. 1945년 4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후, 오펜하이머는 로스 알라모스에서 열린 추도식 연설에서 『기타』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1963년 한 잡지 인터뷰에서 당신의 직업적 태도와 삶의 철학을 형성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10권의 책을 나열해 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오펜하이머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엘리엇의 『황무지』와 함께 『기타』를 언급했다(Hijiya, 2000: 130).

오펜하이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산스크리트어 교수인 아서 라이더(Arther Ryder)에게 산스크리트어를 배웠다. 라이더가 시카고판 『기타』의 번역서를 1929년에 발간했기 때문에 그의 인용구는 라이더 번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오펜하이머가 약간 변형시킨 『기타』의 인용구는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핵폭발을 설명하는 최적화된 문장으로 평가받는다(Hijiya, 2000: 132).

어떤 의미에서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가 사랑한 『기타』보다 더 유명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대표적 문구가 되었는데도 모른다. 로저 샷터크(Roger Shattuck)은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펜하이머의 『기타』의 인용문을 배운다고 지적한다(Shattuck, 1997: 174).

원자폭탄의 아버지, 미국의 프로메테우스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영화가 2023년 개봉되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기타』의 인용문을 마주했다. 본 논문은 놀란 감독의 영화에 재등장하는 오펜하이머의 『기타』의 문장을 분석해보고 오역의 가능성과 오펜하이머의 의도, 그리고 인용문을 둘러싼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오펜하이머의 『기타』의 독법이 인도철학의 진의와 힌두교의 에토스(ethos)와 충돌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논란과 쟁점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오펜하이머의 『기타』 인용

피터 브룩(Peter Brook)의 연극 『마하바라타』는 공연예술의 금자탑으로 꼽힌다. 9시간에 달하는 공연을 통해 『기타』의 배경인 쿠루(kuru)전투를 울부짖음 섞인 비명으로 형상화하는데, 다스굽타는 오펜하이머가 목격한 세기의 종말의 생생한 목격담이 약 43년이 지나 뉴욕의 BAM 대극장에서 생생하게 재현되었다고 표현한다.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 앨라모고도 근처 지평선에 퍼지는 원자폭탄의 섬광은 『기타』에 등장하는 ‘하늘에 떠 있는 수천 개의 태양같은 치명적인 광선처럼 빛나고 있었다. 대폭발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연 핵시대의 서막과 쿠루전투의 시작으로 진입한 칼리유가(Kali-yuga)를 떠올리고 그 상황을 『기타』의 문구로 표현한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뉴멕시코 사막의 그을리고 사산된 모래 평원을 바라보면서 고대 바라타 땅의 지혜를 가져온 것은 참으로 적절했다(Dasgupta, 1987: 9).

오펜하이머가 인용한 『기타』의 문구는 11장 32절 앞부분의 내용이다. 그의 스승인 아서 라이더의 번역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선 라이더의 번역을 알아본다.

나는 죽음이다, 그리고 나의 현재의 임무는 파괴이다(Death am I, and my present task Destruction)(Ryder, 1929: 88).

이 번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죽음’이라는 해석이다. 라이더와 오펜하이머가 죽음으로 번역한 산스크리트 원어는 칼라(kāla), 즉 ‘시간’이다. 시간을 죽음으로 번역하였기에 명백한 오역이 된다. 국내 학자들의 해당 구절의 『기타』 번역과 비교해 볼 수 있다.

1. 나는 무르익은 시간으로서 세계를 파괴하는 자라오(임승택, 1998: 293).
2. 세상을 멸하는 늙어간 시간이다. 세상들을 거두려 이곳에 나섰노라(임근동, 2022: 255).

라이더와 오펜하이머가 상징적으로 해석했다고 전제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번역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위의 두 학자 모두 죽음이란 시간으로 해석했지만 임근동은 각주에 인도신화에서 ‘시간은 죽음’이라는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반면 현재 인도에서 가장 각광 받는 신화학자 팻타나이크(Pattanaik)는 이코노믹 타임즈(2023.7.21)와의 인터뷰에서 오펜하이머가 죽음이라 표현한 것은 시간의 명백한 오역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특히 그는 다소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서 오펜하이머가 의도적으로 오역했다고 비판한다.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자란 오펜하이머가 엄청난 규모의 죽음과 파괴에 흥분하여 인간의 죄를 홍수와 불로 처벌하는 성서적 전통의 세계관에 기인한 오역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해석은 힌두전통도 자이나교, 불교와 같은 다른 인도전통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타』는 1785년 동인도회사 인쇄업자 찰스 윌킨스(Charles Wilkins)에 의해 처음 번역된 후 많은 학자에 의해 상당한 양의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거의 모든 번역본이 칼라를 ‘죽음’이 아닌 ‘시간’으로 번역하고 있다. 라이더의 『기타』 번역판은 문자적, 문학적 양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의 대표적 번역인 『판차탄트라(Pañcatantra)』가 상당한 호평을 받은 것과 완전히 다른 평가이다(Larson, 1981: 519). 라이더의 『기타』 번역은 독특하지만 사상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빈약한 편이다. 그가 시간을 죽음으로 오역한 근거는 에저턴의 『기타』 번역처럼 시간의 번역에 죽음을 괄호로 병기하여 상동성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풀이한 경우 뿐이다.

나는 성숙된 시간(죽음), 세계 파괴의 원인이다(I am Time(Death), cause of destruction of the worlds, matured)(Edgerton, 1978: 113).

원전에서 시간은 pravṛddha(증장하다, 숙성하다, 무르익다)라는 단어로 형용되면서 ‘성숙된 시간’이 되고, 이는 죽음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암시한다. 밀러(Miller)와 라다크리슈난(Radhakrishnan)과 같은 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나 ‘성숙해진 시간’으로 번역하면서, 방대한 시간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죽음을 지시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상징적 번역이 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Hijiya, 2000:132).

오펜하이머의 인용문은 종교철학적 해석에서도 문제가 된다. 시간(kāla)에 1인칭 동사(asmī)’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크리슈나신 자신의 실존적 입장인 “나는 시간이다”를 선언하는 문장이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이를 “나는 죽음이 되었다”로 변화시켜 인용한다. 인도 사상에서 시간은 시간의 척도 안에서만 죽음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시간이 다 채워지면 죽는데, 이 채워지는 현상을 무르익는 ‘성숙’으로 형용한다. 세계와 우주도 마찬가지로 시간관이 적용되어 시간이 익어야 시대의 종말이 다가온다. 인도 종교철학자 아담 보울스는 크리슈나(Kṛṣṇa)가 주재신(īśvara, īśa)이므로 그는 결코 어떤 것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는 죽음이 되었다”는 번역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Bowles, 2023.8.11). 주재신은 창조주 혹은 통제자인 주(主)로서 인격신과 같은 개념이다. 주재신 크리슈나는 죽음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힌두교의 주재신은 세계를 창조했지만 자신 안에서 방출한 창조이고, 파괴도 자신 안으로 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주재신은 창조에 내재하고 그것을 포괄하는 존재이다. 크리슈나 안에는 이미 시간과 다른 만물이 내재하므로 그는 이미 죽음인 존재이다. 인도의 독특한 순환론적 창

조와 파괴는 지멸(止滅, nirvṛtti)과 유전(流轉, pravṛtti)적 행위로 구분된다. 이러한 독특한 신관을 범신론(panentheism)이라 부른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죽음이 되었다’는 오펜하이머의 언술은 힌두교의 신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신은 세계를 전개(pravṛtti)하고 그 안으로 귀멸(歸滅, nirvṛtti)시키는 세계 자체이다. 기타의 본편에 해당하는 마하바라타는 전개와 귀멸 사이의 긴장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절대적으로는 시간과 영원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이다(Adluri, Bagchee, 2016: 280). 비선형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인도사상에서 윤회의 수레바퀴는 원형이다. 세계를 주재하는 주재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자신 안으로 세계를 들여보내고 내뱉으며 세계는 순환한다. 인도의 신의 개념에 근거해서 ‘나는 죽음이 되고 파괴자가 된다’는 문장을 읽으면 이는 힌두신에게 해당될 수 없는 비문이 된다. 이 문장은 비슈누의 화신(化身, avatāra)인 크리슈나가 자신의 본체인 비슈누가 확장된 시간 속에서 파괴의 시간을 운용할 때가 도래했음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확장되고 길어진 숙성된 시간은 비슈누가 해치울 무서운 파괴의 시간을 암시한다. 비슈누 안에 내재한 창조, 유지, 파괴의 모습을 시간 속에서 꺼내어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비슈누의 현현(顯現)이다.

비슈누의 현현은 『기타』에서 매우 중요한 성현(聖顯)과 다르샤나(darśana, 觀)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자신의 가장 높은 신적 형상인 성현을 드러내고, 아르주나는 신을 현현한 형태로 보는 신애자의 다르샤나를 경험한다(Hillary, 2017: 252). 인도철학에서 철학적 사유를 다르샤나라고 하여 철학의 대표어로 사용하는데, 종교적 다르샤나의 경우 감각을 초월하는 능력을 통해 절대실재에 대한 직접적이고 완전한 이해를 의미하는 성현과 연관된다. 크리슈나의 본체를 드러내는 현현은 신애자에게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신성과 신애자 사이에서만 가능한 심오하고 친밀한 결합인 박티(bhakti, 信愛)를 발생시킨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자신의 우주적 형상을 볼 수 있는 신성한 눈을 부여해서 이를 통해 신을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신현(神顯, a theophany)을 체험시킨다. 이것이 바로 엘리아데(Eliade)가 말하는 신성의 현현, 즉 성현(聖顯)이다.

이 형태는 당신이 본 것처럼(dṛṣṭvan asi) 보기가 매우 어렵다(sudurdarśam). 천신들 역시 그것을 인식하기를 갈망한다(darśana-kaikṣiṇaḥ). 『기타』(11.52)

『기타』(11.16)에서 아르주나가 현현되는 비슈누의 우주적 모습을 비슈바루파(Viśvarūpa)라 부른다. 우주 전체가 비슈누이기에 그의 ‘모든(visva) 형상(rūpa)’을 본다는 뜻으로, 아르주나는 비슈누와 전 우주를 한꺼번에 목격하게 된다. 비슈누와 크리슈나는 본체와 아바타(avatar, 산스크리트어는 avatāra)의 관계로서 동일하지만 다른 신격이다. 마하바라타 후반부에 크리슈나는 전쟁의 책임을 묻는 성자의 저주를 받고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아 사망한다. 아바타의 신격인 크리슈나는 인간세계에 내려와 살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존재이다. 본래 목동의 신이지만 아르주나왕자에게 세계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천한 마부의 역할도 수행한다. 고대인도의 관습상 전차에 동승한 전차사만이 왕자와 비밀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스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신분이 낮은 마부라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 그렇기에 『기타』(11.46)에서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에게 화신이 아닌 최고의 신성인 비슈누로서의 본 모습을 원반 차크라(cakra)와 곤봉(gadina)을 든 네 개의 팔을 지닌 비슈누의 형태를 보여달라고 간청하기도 한다.

III. 오펜하이머와 아르주나

『기타』는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한 장을 축약한 간략한 시편이다. 하지만 축약된 한 권에 전쟁의 긴박함과 아르주나의 간절함이 교차되면서 다양한 요가(yoga)의 방법을 제시하여 힌두철학을 잘 응축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서구인들이 힌두 경전 중에서 유난히 『기타』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형태가 성경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기타』를 ‘힌두의 바이블(Hindu Bible)’이라고 부른다. 또한 대다수의 힌두교 경전이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고 해독이 어려운 것과는 다르게 여러모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차이가 있다.

오펜하이머는 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로서 그 무기가 세상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마하바라타』에도 다양한 전쟁무기들이 등장한다. 판다바와 카우라바의 가문은 강력한 신의 무기를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쿠루전투에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브라마의 활과 쉬바의 활은 현대의 핵무기에 비교되면서 가공할 위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마하바라타』에서 최고의 무기로 언급되는 것은 파슈파타(Pāśupata)이다. 파슈파타는 『마하바라타』(3.40.91)에서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묘사된다.

마하데바(쉬바)가 말하길,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인 파슈파타를 너에게 주겠다. 오, 판두의 아들이여, 너는 그것을 잡고, 던지고, 꺼낼 수 있다. 신들의 우두머리도, 야마도, 약사의 왕도, 바루나도, 바유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인간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 프리타의 아들이여, 이 무기를 적절한 이유 없이 쏘아서는 안 된다. 만약 힘이 약한 적에게 쏜다면 그것은 온 우주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생물과 움직이지 않는 생물이 모두 있는 삼계에서 이 무기로 죽지 않을 생명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으로, 눈으로, 말로, 활로 던질 수 있다(Ganguli, 1883-1896: 91).

마하바라타의 쿠루전투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아르주나가 왜 파슈파타를 사용해서 전쟁을 끝내지 않았는가이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도 그는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파슈파타의 위력은 쉬바가 세계의 유가(yuga)가 바뀔 때 까맣게 더러워진 세상을 화염의 불로 태우는 파괴의 춤 난타라자(Naṭarāja)의 위력과 동일하다. 무엇보다 아르주나는 이 무기를 얻기 위해 오랜 기간 고행(tapas)을 했고 쉬바의 테스트도 견뎌냈다. 하지만 아르주나를 비롯한 판다바형제들은 세계를 멸망시킬 무기를 만약의 사태를 위한 예비적 방책으로만 남겨둔다. 쉬바가 아르주나에게 파슈파타를 건네주면서 ‘약한 상대에게 이를 사용하면 우주 전체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아르주나는 이를 무시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이들이 학살당했을 때에도 절대 공멸의 무기인 파슈파타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르주나가 세계를 멸망시킬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반해 오펜하이머는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고 그 현장에서 마치 신처럼 자신을 세계의 죽음이며 파괴자라고 선언한다. 이 장면은 절대 『기타』의 크리슈나나 비슈누의 위대함을 투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타』를 인용하고는 있지만 오펜하이머의 선언인 “이제 나는 죽음이고, 세계의 파괴자이다”에 대한 다양한 비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힌두철학자 아담 보울스의 견해이다. 보울스는 이 선언을 자신을 세계 최고 신격과 동일시하는 ‘의기양양한 과학적 근대성(a triumphant scientific modernity)의 신 콤플렉스(God-complex)로 해석된다(Bowles, 2023.8.11). 절대적 이성과학 숭배의 근대 시대의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과학적 지식의 오만함으로 자신을 힌두의 신에 빗대어 신격화하여 인용하였다고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1965년 인터뷰에서 『기타』의 인용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는데, 보울스는 이 발언도 언급하면서 “과학적 근대성의 선구자가 되겠다던 휴브리스(hubris)가 사라졌다”고 비판한다(Bowles, 2023.8.11). 휴브리스는 문명비평가 아놀드 J. 토인비(Arnold J. Toynbee)가 규정한 용어로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우상화하여 오류에 빠지는 인간의 오만을 나타내는 말이다. 보울스는 논란의 영화 『오펜하이머』의 후반부에서 오펜하이머의 휴브리스가 증발하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표현되는 것은, 핵폭발이 세계의 멸망을 이끌 것이라는 그의 두려움 또한 인간의 오만이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밝히고 있다고 분석한다.

두 번째는 산스크리트학자 스티븐 톰슨(Stephen Thompson)의 지적이다. 그는 오펜하이머가 힌두교에 지적 흥미를 느끼고 『기타』의 문구들을 사랑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인용한 『기타』의 문구가 힌두교를 사상적으로 이해하고 체화해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Temperton, 2023.7.21). 『기타』의 11장 32절에는 오펜하이머가 인용구절 외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다. 톰슨은 이 부분의 해석을 이론적 근거로 내세운다.

1. 그대가 없더라도 적들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전사는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임승택, 1998: 293).
2. 적군에서 있는 모든 용사는 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없어질 것이다(임근동, 2022: 255).

이 문구는 아르주나가 신의 본모습을 본 것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아르주나가 자신의 본분인 전쟁을 치르는 전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적군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는 문구인 까닭이다. 톰슨은 『기타』에서 말하는 죽음은 환(幻, māyā)이라고 설명한다. 진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세계의 창조 전체는 경이로운 연극(演劇, play)과도 같은 것이다. 철학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한 미혹의 상태를 마야라고 하는데 마치 꿈과 같은 것으로서 한 편의 연극과 같다고 설명된다.

아르주나가 비슈누의 잔인하고 충격적인 형상을 보고도 전쟁에 나가서 사촌형제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현상적으로는 죽지만 아트만(ātman)이라는 주체적 영혼의 올바른 인식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실재성의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타』에서 아르주나가 종말론적 계시를 받고 집착없이 자신의 의무를 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펜하이머는 괴로움에 빠진다. 톰슨은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의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가 그 파괴가 궁극적으로 환상이었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결론내리고 이를 힌두철학이 내세우는 불멸의 영혼에 대한 철학을 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오펜하이머의 ‘명백한 무능력(apparent inability)’이라고 비판한다(Temperton, 2023.7.21). 산스크리트라는 언어와 『기타』의 아름다운 시적 구성을 사랑했음은 몰라도 『기타』의 철학적 진리를 자신의 철학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기타』는 진리를 획득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지식(jñāna), 행위(karam), 박티(bhakti)를 구분한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로 가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기타』의 길은 결국 진리로 통합된다. 이는 오펜하이머가 『기타』라는 신비에 매혹되었지만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에는 무관심했거나 무지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보울스와 톰슨의 날선 비판은 힌두교에 대한 취미와 애호를 넘어서는 철학적 진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촉구로 이어진다. 이는 근대 저명한 물리학자 한 개인에게 지나친 책임을 요구하는 해석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타』를 소개하는 문헌에서 오펜하이머와 그가 인용한 문구는 『기타』를 대변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Vemsani, 2016: 31)는 점에서 오펜하이머의 영화로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IV. 『판차탄트라』의 우화

오펜하이머는 『기타』 외에도 인도우화인 『판차탄트라』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평소에도 자주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가루다(Garuḍa)라고 부른 일화는 유명하다. 가루다는 비슈누신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vāhana)인 신화적 새의 이름이다.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차에 가루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판차탄트라』의 다소 낭만적인 이야기인 ‘공주를 사랑한 직조공(The Weaver Who Loved a Princess)’에 등장하는 나무모형의 가루다에서 따온 것이다(Ryder, 1925: 89-112). 비살 나가르(Vishal Nagar)라는 도시의 아름다운 공주 쉬리마타(Srimati)를 사랑한 직조공 아르준(Arjun)은 친구 로한(Rohan)의 충고를 받아 비슈누인 척 위장하여 공주를 만나러 간다. 비슈누가 타고다니는 가루다의 나무모형을 만들어 공주의 베란다 앞에 선 아르준을 공주는 비슈누로 착각하고 둘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다. 이를 수상히 여긴 카비(Kavi)는 아르준이 비슈누가 아닌 천한 직조공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지만 두 연인에 연민을 느낀다. 그는 성자 파르타(Parth)에게 연인의 이야기를 전한다. 결국 비슈누가 자신을 가장한 아르준을 만나러 가고 신의 축복 속에 하르샤(Harsha) 국왕의 딸과 아르준은 결혼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오펜하이머 실생활의 단편적 일화라면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판차탄트라』의 에피소드는 “사자를 만든 자들(The Lion-Makers)”이다.

네 명의 브라만이 있었다. 세 명의 브라만은 학식이 뛰어나지만 상식이 부족하고, 한 명은 학식이 부족하지만 상식이 있었다. 네 명이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를 보았다. 세 명의 브라만은 자신들의 주법적 지식으로 사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고 싶었다. 하지만 상식있는 한 명의 브라만은 사자는 맹수라며 이를 반대한다. 오만한 브라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한다. 첫 번째 브라만이 사자의 뼈대를 모아 붙이고, 두 번째 브라만은 살과 피부를 소생시키고, 세 번째 브라만은 호흡을 불려 생명을 주었다. 이 과정을 지켜 본 네 번째 브라만은 나무 위로 올라가 숨어버린다. 되살아난 사자는 세 명의 브라만을 모두 먹어 치우고 홀연히 사라진다. 나무에서 내려온 네 번째 브라만은 “상식이 지식보다 낫다”고 중얼거린다(Ryder, 1925: 442-444).

오펜하이머는 실제로 사자우화를 자주 입에 올리며 상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의 그가 상식이 풍부한 브라만인지 지식이 풍부한 브라만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오펜하이머는 『기타』가 제시하는 ‘본분의 다르마(svadharma)’로서의 원자폭탄을 개발한 행위를 합리화하며, 과학자의 의무와 정치가의 의무를 분리한다. 자신은 과학자이므로 폭탄을 만드는 것이 의무이고,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치가들의 의무라고 분리해서 생각한다. 원자폭탄의 개발과 투하에 대해 오펜하이머가 정부의 결정에 동조한 이유도 정치적 의사결정은 과학자의 다르마가 아닌 정부와 정치인들의 다르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행위(karma)에 책임이 있고, 행위의 결과를 포기해야 한다는 『기타』의 ‘이욕(離欲)의 행위(niṣkāma-karma)’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그는 『기타』에서 말하는 카르마, 운명, 자유의지 등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 윤리적 의무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기타』를 자신의 삶의 안내지도로 삼았다(Das, 2023: 94).

오펜하이머는 아르주나처럼 본분의 다르마를 갖기 위하여 자신에 맞게 다르마를 재정의한다. 카스트적 특징을 갖는 인도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근대 서구사회에서의 자신의 의무, 본분의 다르마를 직업적 의무인 ‘과학자의 다르마’로 해석한다. 『기타』의 다르마 이론은 상당히 복잡한데 크리슈나는 이를 중요하게 다룬다. 특히 계급의 다르마(varṇa-dharma)와 가족의 다르마(kula-dharma)가 ‘보편적 다르마(sādhāraṇa-dharma)’보다 더 중요하다고 아르주나에게 강하게 교설한다. ‘살인은 죄악이다’와 같은 보편적 다르마는 평상시에 절대적 가치를 갖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사(kṣatriya)라는 계급의 다르마가 더 중요한 가치로 전환된다. 이처럼 다르마는 유연한 특성을 갖고 상황에 맞게 운용된다(김진영, 2016: 161-162).

『기타』에서 아르주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르마가 현실에서 충돌하면서 망설이고 좌절한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의무, 즉 본분의 다르마를 수행하는 데 지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임한다. 오펜하이머는 『기타』에 담긴 다르마의 철학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을 어지럽히던 정신적 안개에서 해방되어 결과적으로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성공한다(Das, 2023: 95). 트리니티 실험 후 20년이 지나 뉴욕 타임즈잡지(New York Times Magazine)와의 인터뷰에서 오펜하이머는 “나는 내 역할을 다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오펜하이머는 『기타』의 행위철학에 공감하여 과학자는 연구결과의 활용과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사상으로 발전시켜 이를 해석한다. 그의 인터뷰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담겨 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이윤적이라는 합리화도 내재해 있다. 그럼에도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가 과연 그 폭탄의 살상과 관련된 책임과 무관한가에 대한 의문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기타』의 현대적 해석자인 이스와란은 이욕의 행위(niṣkāma-karma)는 단순히 행위의 결과(karma-phala)를 버리는 현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Easwaran, 2007: 53). 욕망(kāma)을 버린다는 것은 에고(ego)와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는 것이다. 악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기 본위적일 수 밖에 없다. 이욕은 욕망을 채우고 안심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욕망의 행위가 자기중심성을 떠나는 1차적 행위를 한 후 그 결과를 포기하는 이차적 행위로 완성되는 중첩적 행위이다. 이기적 행위의 향유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이는 자의와 타의에서 선한 행위가 된다. 즉, 살인을 한 후 그 행위의 결과를 포기

하는 것은 이욕의 행위가 될 수 없다. 살인은 철저한 예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크리스나나 아르주나에게 말한 이욕의 행위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종교학자 나라얀난도 『판차탄트라』의 실용적 교훈과 오펜하이머의 삶이 어떠한 균형을 이루었는지를 반문한다(Narayanan, 2023.8.16.).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기타』(3.25)와 같이 이욕행(niṣkāmakarma)이라는 용어가 세계의 복지/안녕(lokaśaṅgraha)와의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행위의 기술이 이욕행이라면 행위의 목적은 세계의 복지가 되는 것처럼 두 개념은 필연적 관계성을 가지며 『기타』의 행위의 문제를 풀어간다(Agarwal, 2002: 239; Dash, 2015: 59). 나쁜 행위의 결과를 버리는 이욕행은 책임의 면피에 불과하다. 『기타』의 이욕행은 타인과 사회의 안녕을 촉구하는 선한 행위의 결과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지적 학문보다 상식이 더 중요하다는 판차탄트라 우화를 자주 인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연 뉴멕시코에서 원자폭발이 일어날 때 자신이 바로 사자를 살려내는 어리석은 브라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

V. 결론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하면서 이 영화는 힌두교의 대표적 성전인 『기타』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쟁에 휘말렸다. 힌두교도들은 놀란 감동이 최초로 찍은 베드신이 등장하는 영화가 바로 『오펜하이머』이며, 그 장면이 『기타』가 등장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힌두교 모욕에 대한 엄청난 양의 트윗을 작성한다. 한편으로는 자극적이며 흥미롭다는 호의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인도 내 흥행에 성공한다. 영화 전반부 약 23분에 등장하는 베드신과 『기타』 구절을 남녀간의 친밀한 감정과 병치시키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영화에서 오펜하이머를 연기한 킬리언 머피(Cillian Murphy)는 인터뷰에서 “오펜하이머와 진 태트록(Jean Tatlock)의 관계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적 부분 중 하나다.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 일(베드신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쩌면 일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색한 부분”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명한다(Murray, 2023.7.31). 놀란 감독 역시 “오펜하이머 삶의 측면에서 여성과의 관계를 그리는 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애둘러 말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를 초월한 상호 간의 이해를 그리기 위해 이 장면이 필요했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내부를 실제로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 수줍어하거나 암시하지 않고 무엇이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 그러나 친밀해지려고 노력하고 그와 함께 있고 그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인터뷰를 남긴다(Guerrasio, 2023.7.20).

국내 tvN 프로그램 ‘알쓸별잡’(2023.8.10. 방송)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를 제작하게 된 동기를 묻는 이동진 영화 평론가에게 “늘 복잡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에 끌렸다 …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쉽게 답을 주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답한다.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감과 같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영화는 그들을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다 … 당시 최선의 선택을 했음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들이 옳았다는 뜻은 아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끝없이 논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놀란이 느낀 것과 같이 오펜하이머의 자서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서 친구들은 그가 어려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고대 힌두경전인 『기타』에서 보여주는 아르주나왕자와 비슈누신의 화신인 크리스나 사이의 대화 같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에 대한 취향’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한다(Bird, et al, 2007: 99)

하지만 인도사상에 대한 오펜하이머의 선호와 취향이 힌두교를 자신의 종교로 체화하거나 진지한 철학적 성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는 힌두사원에 들어가거나 힌두신에게 기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형은 오펜하이머가 『기타』의 매력과 지혜에 매료되었지만 힌두교를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전한다(Hijjiya, 2000: 126).

근대 미국인이 고대의 인도철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그의 전기의 중요한 측면을 조명할 수 있다. 맥락적으로 볼 때, ‘이제 나는 죽음이 되었다’라는 인용문은 오펜하이머가 어떻게 인도철학을 자기 양심의 극렬한 고통(pangs)의 진통제(anodyne)로 사용했는지를 보여준다(Hijjiya, 2000: 125).

오펜하이머에게 인도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한 동양이었다. 그것은 그의 단순한 취향이거나 내밀한 공감일 수도 있지만 20세기 초반 미국의 지식인에게 유행하던 산스크리트학과 인도학이 만들어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Darshana, 2023.8.5.). 『기타』가 오펜하이머에게 근대 서구지식인이 꿈꾸던 완전히 다른 세계의 안식처이거나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는 도피처를 제공해주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힌두교 경전과 우화에 대한 그의 의 깊은 애정을 고려한다면 우리에게 그는 『기타』의 구절을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인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긍정적 추측만이 남게 된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영화를 통해 『기타』는 다시 힌두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경전이 되고 그가 말한 구절은 기타를 대변하는 인용구로 재생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기

타』의 문구를 둘러싼 현대학자들의 논쟁과 비판의 쟁점이 무엇인가에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 오펜하이머가 트리니티 핵실험에서 힌두교의 성전 『바가바드 기타』의 “이제 나는 죽음ियो,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라는 시구를 인용한 것을 사상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오펜하이머가 영화에서 인용한 『기타』의 문구는 핵폭탄의 자극적인 섬광과 버섯구름의 이미지와 함께 세계 종말의 묵시록을 구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오펜하이머의 다큐멘터리, 인터뷰, 자서전을 통해 만났던 『기타』의 인용구는 영화를 통해 재생산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 문장을 학습하고 있다. 이 글은 오펜하이머가 말한 『기타』의 문구와 오역의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인용구를 둘러싼 신화학자, 종교학자, 철학자들의 비판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힌두교의 짧은 시구가 불러일으킨 문화적 논쟁을 검토하고 종교철학적 진의와 쟁점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오펜하이머, 크리스토퍼 놀란, 바가바드 기타, 힌두교, 죽음.

참고문헌

- 김진영(2016). “인도철학에서의 고통과 불행 개념: 『마하바라타』의 ‘아르주나의 딜레마’와 비극적 모럴리티”, 『철학논집44』, 철학연구소, 155-180.
- 임승택(1998). 『바가바드기타강독』, 서울: 경서원.
- 임근동(2022). 『바가바드기타』, 서울: 사문난적.
- Agarwal, S. P(2002). Selection from the Mahabharata: Re-affirming Gitā's call for the Good of All, Columbia: Motilal Banarasidass.
- Adluri, Vishwa, Bagchee, Joydeep(2016). Argument and Design-The Unity of the Mahabharata, Leiden: Brill.
- Bird, Kai, Sherwin, M.J.(2007). American Prometheus: The Triumph And Tragedy of J. Robert Oppenheimer, New York: Vintage.
- Bowles, A(2023.8.11). “The destroyer of worlds”: Oppenheimer, death, and the Bhagavad-Gītā, ABC Religion and Ethics, <https://www.abc.net.au/religion/what-oppenheimer-misunderstood-about-the-bhagavad-gita/102720788> (검색일: 2024년 5월 30일)
- Darshana, R(2023.8.5.). “Now I am become Death...’ Oppenheimer and the Bhagavad Gita, Global Indian”, <https://www.globalindian.com/story/art-culture/now-i-am-become-death-oppenheimer-and-the-bhagavad-gita/> (검색일: 2024년 5월 30일)
- Das, S(2023). “Impact of Bhagavad Gītā's Philosophy on T.S. Eliot and Robert Oppenheimer”, The IUP Journal of English Studies 92(4), 90-95.
- Dash, Subhasree, Dash, Bibhudatta(2015). “The Cultural Connotation of Dharma in the Bhagavad Gītā”,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8), 56-60.
- Dasgupta, Gautam(1987). “The Mahabharata: Peter Brook's “Orientalism””, Performing Arts Journal 10(3), 9-16.
- Edgerton, Franklin(1978). The Bhagavad Git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 Easwaran, Eknath(2007), The Bhagavad Gita, Tomales, CA: Nilgiri Press.
- Ganguli, K(1883-1896). The Mahabharata of Krishna-Dwaipayana Vyasa vol.3,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 Guerrasio, J.(2023.7.20.). “Christopher Nolan explains why it was ‘essential’ to showcase sex scenes in ‘Oppenheimer’”,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com/oppenheimer-christopher-nolan-sex-scenes-explanation-essential-2023-7> (검색일: 2024년 5월 30일)
- Hijjiya, James A(2000). “The “Gita” of J. Robert Oppenheimer”,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44(2), 123-167.

- Larson, G. J(1981). "The Song Celestial: Two Centuries of the "Bhagavad Gītā" in English", *Philosophy East and West* 31(4), 513-541.
- Murray, T(2023. 7.31). "Oppenheimer star Cillian Murphy says 'awkward' sex scenes with Florence Pugh were 'vital' : Scene has faced backlash in India",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arts-entertainment/films/news/cillian-murphy-florence-pugh-oppenheimer-sex-scene-b2384751.html>. (검색일: 2024년 5월 30일)
- Narayanan, V(2023. 8.16). "Oppenheimer often used Sanskrit verses, and the Bhagavad Gita was special for him-but not in the way Christopher Nolan's film depicts it",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oppenheimer-often-used-sanskrit-verses-and-the-bhagavad-gita-was-special-for-him-but-not-in-the-way-christopher-nolans-film-depicts-it-211253>. (검색일: 2024년 5월 30일)
- Pattanaik, Devdutt(2023.7.21.). "Devdutt Pattanaik claims Bhagavad Gita quote in Oppenheimer was misinterpreted", *Economic Time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new-updates/devdutt-pattanaik-claims-bhagavad-gita-quote-in-oppenheimer-was-misinterpreted/articleshow/102011803.cms?from=mdr> (검색일: 2024년 5월 30일)
- Rodrigues, Hillary P(2017). *Introducing Hinduism*, New York: Routledge.
- Ryder, A.W(1929). *Bhagavad Git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yder, A. W(1925). *The Panchatantra of Vishnu Sharm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attuck, Roger(1997). *Forbidden Knowledge: From Prometheus to Pornography*, San Diego: Harcourt Brace.
- Temperton, J(2023.7.21.). "The line, from the Hindu sacred text the Bhagavad Gita, has come to define Robert Oppenheimer, but its meaning is more complex than many realize.", *Wired*, <https://www.wired.co.uk/article/manhattan-project-robert-oppenheimer>. (검색일: 2024년 5월 30일).
- Vemsani, Lavanya(2016). *Krishna in History Thought and Culture*, California: ABC-Clio LLC.